

##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PURGAMENTUM INIT, EXIT PURGAMENTUM’

By Fritz Klumpp

딸이 내게 생일 선물로 사준 새 티셔츠에는 라틴어로 “PURGAMENTUM INIT, EXIT PURGAMENTUM”이라는 문구가 크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다. 이 문구는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문구 아래에는 빨간색으로 “GARBAGE IN, GARBAGE OUT(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이라는 해석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책을 읽을 때 조심해서 선택하라고 말할 때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했다.

The inscription on my new tee shirt, a birthday gift from my daughter, read in big bold letters the Latin phrase, “PURGAMENTUM INIT, EXIT PURGAMENTUM,” an old Latin phrase I came across many years ago. On the shirt, beneath that inscription, it read in smaller red letters, “GARBAGE IN, GARBAGE OUT.” My children heard me state those same words many times as I attempted to influence what they watched on television or at the movies, the kinds of the music they listened to, and the books they read.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막 등장했던 초기에 널리 사용된 문구로 “잘못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Garbage in, garbage out’ was a phrase popularized during the early days of computers, meaning that if faulty programming were put into them, faulty results would come out. This applies to us as humans, too.

인간의 마음은 매우 놀랍고 복잡한 컴퓨터이다. 사실 우주 탐사 초기에 미국인 흑인 여성들에게 ‘컴퓨터’라는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 이유는 우주로 사람을 쏘아 올리기 위해 매우 복잡한 수학 공식을 계산해야 했는데, 컴퓨터 없이 직접 머리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그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 “Hidden Figures”을 통해 소개되었다.

The human mind is a wonderful and extremely complex computer. In fact, during the earliest days of space exploration, a dedicated group of African American women received the nickname of “computers,” since they were using their minds to compute very complicated mathematical formulas that would make launching men into space possible. Their story is told through the theatrical film, “Hidden Figures.”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머리를 통해 나오는 결괏값도 결국 인간 안에 입력된 정보의 가치나 정보의 진실성이 그 바탕이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데이터를 받기 시작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 계속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흡수한다. 이렇게 축적된 방대한 정보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정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치관은 또다시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수용한 정보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진실인지를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살아간다.

**Receiving daily input.** However, as with any of today's electronic computers, what comes out of the human mind is no better than the value or validity of what is programmed into it. We begin receiving data while still in our mother's womb, and we continue receiving input – information of all kinds – throughout our lives. This vast collection of data shapes our development of the ways we think and respond to the world around us, ultimately our personal worldviews. One's worldview determines values, and these values in turn influence one's behavior. In spite of this reality, many of us go through life without ever considering the validity or truth of those things that have shaped our thinking.

나도 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읽기 전까지는 나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일했을 때도, 상업 항공사 조종사로 일했을 때도 나는 한 번도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가? 내 가치관, 왜 내가 특정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런 생각들을 형성한 요인은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없었다.

Until I began to read what God, the Creator of all things, had to say in the Bible, I too had never taken time to examine what was influencing my thinking. Whether as a fighter pilot during the Vietnam War or a commercial airline pilot, I never paused to wonder, ‘Why do I think the way I do? What factors have served to influence and form my values, opinions, and the things I hold dear?’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 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2 에서 했던 말을 접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접한 여러 형태의 미디어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Conformed to this world?** However, after becoming a follower of Jesus Christ, I began to read the Word of God and discover statements like this from the apostle Paul, who wrote in Romans 12:2,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Was the information I was taking in from the media in all its forms conforming me in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수많은 출판물,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는 정보 과부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 폭탄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좋은 것이지만, 일부는 전혀 좋지 않은 것들이다. 나는 로마서 2:1 과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읽다가, 바른 생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끊임없이 바뀌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없는 가치관에 기반한 것인지를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With the myriads of written publications, television, films, radio, and the Internet, we live in an era of information overload. We are constantly being bombarded with all kinds of data, some of it good, some of it not good at all. After reading Romans 12:2 and other passages from the Scriptures, I realized if I am to maintain clear thinking, my challenge is to sift through all of this information and determine which is valid and based on truth, and which is based solely on the shifting sands of culture and godless values.

**진리로 가는 길을 찾다.** 이러한 분별을 잘하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우리의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컴퓨터를 진리에 기반한 것들로 채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6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purgamentum init, exit purgamentum.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Finding the way to truth.** To effectively make these assessments, I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for me – and I believe for all of us – to ensure that we are programming our minds, our ‘computers,’ with what we know to be true. As Jesus said, recorded in John 14:6,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Knowing Him and seeking to follow His teachings in the Bible is the best way to avoid the trap of “purgamentum init, exit purgamentum” – garbage in, garbage out.

## 묵상과 토론

###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When you hear the phrase, “Garbage in, garbage out,” what comes to your mind?

2.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With all the information that’s available to you each day, whether through the print or broadcast media, the Internet or other sources, how do you decide the way you process that data and how it influences you?

3.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요? “세상 풍속을 좇아가는 것”과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What do you think it means to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How does this differ from being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4.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가 매일 일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즉 말은 업무, 대인관계, 전반적인 목표와 계획,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할까요?  
Jesus Christ claimed that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How can or should this declaration affect how we approach each workday – the job assignments we handle, the people we meet and interact with, our overall goals and objectives, the way we assess truth?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고린도후서 10:2-5; 빌립보서 4:8; 갈라디아서 5:22-23; 골로새서 3:2-10; 베드로전서 1:13-14**

2 Corinthians 10:2-5; Philippians 4:8; Galatians 5:22-23; Colossians 3:2-10; 1 Peter 1:13-14

- **(고린도후서 10:2-5) 2**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3**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빌립보서 4: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 **(갈라디아서 5:22-23)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골로새서 3:2-10)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 **(베드로전서 1:13-14) 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 이번 주 도전

### Challenge for This Week

이번 주에는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친구나 조언자, 멘토 또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모임을 찾아서 “purgamentum init, exit purgamentum”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원칙에 비추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This week, find someone you can talk with candidly – a trusted friend or advisor, mentor, or accountability group – and together evaluate how you are doing in terms of “purgamentum init, exit purgamentum”: garbage in, garbage out.

이번 주에는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친구나 조언자, 멘토 또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모임을 찾아서 “purgamentum init, exit purgamentum”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원칙에 비추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Consider what steps you are taking to ensure that your natural computer – your mind – is being filled with the right kinds of programming, the right data to enable you to be and to become the person that God wants you to be.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저: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